

우리나라 최초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의 세계 및 각국에 대한 서술 구조와 그 함의

이명희* · 박지수**

Korea's First World Geography Textbook Saminpilji: Its Structure and Implications

Myung-hee Lee* · Jisu Park**

요약: 본 논문은 호머 헐버트가 저술한 한국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를 분석하고, 그 서술 구조와 내용이 당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사민필지』는 1886년, 헐버트가 육영공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술된 교과서로, 당시 한국인들에게 생소했던 세계 지리와 서구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책은 단순한 지리 교과서를 넘어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사민필지』는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비서구 지역을 낮게 평가하는 등, 서구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사민필지』는 한국 사회에 서구 문명과의 교류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서구 중심적 시각은 현대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교육은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민필지』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주요어: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 근대화, 지리교육, 서구 중심적 시각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Saminpilji, the first Korean world geography textbook written in Hangul by Homer Hulbert, and explores the impact of its structure and content on Korean society at the time. Saminpilji, written in 1886 while Hulbert was teaching at Yukyeong Park,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new insights into world geography and Western civilization, which were largely unfamiliar to Koreans at the time. The book is seen as more than just a geography textbook, as it served as a guide for Korea on how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world in the context of modernization. However, Saminpilji reflects a Western-centric perspective by focusing on Western civilization and devaluing non-Western regions. While this perspective may have been necessary during Korea's modernization process, it needs to be critically examined from a contemporary standpoint. In conclusion, Saminpilji helped establish a foundation for Korea's engagement with Western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but its Western-centric view should be reconsidered in light of modern perspectives. Moreover, today's education must not only offer a balanced worldview but also provide clear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the lessons from Saminpilji.

Key words: Homer Hulbert, Saminpilji, modernization, geography education, Western-centric perspective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Professor of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hlee@kongju.ac.kr

** 연일초등학교 교사(Teacher, Yeonil Elementary School), dyb86@naver.com

I. 서론

19세기 말, 한국은 근대화와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와의 접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¹⁾들에게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한국 근대교육의 초석을 다진 『사민필지』는 당시 세계지리와 문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 교과서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책이었다. 『사민필지』는 1886년, 호머 헐버트(1863.1.~1949.8)가 육영공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3년 만에 완성한 한글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로, 한국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더불어 서구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사민필지』는 헐버트가 육영공원의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위해 편찬한 단순한 교과서를 넘어, 당시 한국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사민필지』에 대해 “아직 세계정세에 대해 백지상태이던 한국에 세계지리 지식을 꾸밈없이 심어주어 세계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근대화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민필지』는 한국인이 개항 후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와 관계를 맺고 교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세계와 각국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였다.

『사민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다. 안예리(2023: 173-216)는 『사민필지』의 집필 과정과 참고 자료를 보다 심도있게 밝혔고, 나아가 당시 영미권 세계지리 교과서와 비교하여 서구에서 구축된 근대적 지식이 헐버트에 의해 재구성되었다는 점과 함께 차이점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집필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여 헐버트는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서구의 선진적인 정치체제를 배워 부패하고 유해한 정치체제를 개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강철성(2009: 67-75)은 『사민필지』의 서문, 편찬취지, 내용체계, 지리적 내용과 지명 등을 분석하여, 당시 서양

지리학의 학풍을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나 기독교적 창조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서구세계에 대한 지나친 찬사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허재영(2015: 7-36)은 웜즈(N.C.Weem)가 영국에서 1905년에 발간한 The History of Korea를 복간(1962년)하면서 쓴 전기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견하였다. 즉, 헐버트는 교과서로서 『사민필지』뿐만 아니라 『대동기년(大東紀年)』, 『대한력스』 등 다수의 교과서를 저술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른바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12종의 시리즈가 계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초학디지』, 『사민필지』, 『미국스기』, 『싱리학초권』, 『턴문략히』 등 5종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과서는 순 한글 교과서로 문장과 학술용어를 표준화하고자 하였고, ‘못’은 ‘말’(질문)을 설정하여 교수법을 고려한 교과서 편찬을 시도하였으며, 보통교육을 통한 근대지식의 보급을 지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서태열(2013: 53-69)은 1895년~1905년에 학부가 발행한 총 7권의 지리교과서의 출판과정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1895년 3월, 순 한글본 『사민필지』의 한역 본 『士民必知』가 교과서 형태로 가장 먼저, 그것도 학부가 아니라 의정부 편사국이 출판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의정부 편사국장 시절 순한글본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던 한자본 『士民必知』를 출간했음을 주목하였다. 즉, 갑오경장 후 조직된 친일내각의 학부가 일본인을 고용하여 『朝鮮地志』와 『萬國地志』를 출판하려는 것에 앞서 우리의 세계지리책을 만들기 위해 한역 『士民必知』를 간행하였고, 그것을 교육에서 한문 사용을 선호하던 신기선 학부대신이 학부도서, 즉 교과서로 편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민필지』가 단순한 지리 교과서를 넘어, 당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사민필지』는 서구 세계지리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어 당시 한국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단순한 서구 문명의 수용을 넘어, 한국 사회가 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서구 지리학적 체계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도입했지만,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근대적 지식과 세계관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민필지』가

당시 교육 체제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구 문명을 수용하고 한국적 지식 체계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민필지』의 서술 구조와 내용이 당시 한국 사회의 세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며, 나아가 이 책이 한국의 사회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사민필지』와 동시대의 주요 세계지리서인 『해국도지』 및 『영환지략』을 비교하여, 험버트가 제시한 세계관이 한국인의 지리 인식에 어떠한 변화와 확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사민필지』 내에 등장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서술을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국에 대한 묘사 방식 및 서술의 주제어와 평가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서술이 한국인의 세계 이해에 제공한 의미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사민필지』의 서술 구조와 내용을 오늘날 사회과교육의 주요 개념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균형 잡힌 세계관 형성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호머 험버트의 한국에서 활동과 『사민필지』 편찬의 맥락

1. 호머 험버트의 한국에서 활동

호머 험버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특히 『사민필지』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 지리 교육과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험버트의 한국 활동은 단순한 선교사적 사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근대화와 국제적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기여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활동은 한국의 근대 지리 교육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험버트의 생애 중 한국에서 활동은 1886년 육영공원 교사로 부임한 시기부터 1907년 헤이그특사로 파견된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미국 매츠세스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기까지 약 20년 동안의 활동과 1946년 임종을 앞두고 한국의 독립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주이다. 86년의 삶 가운데 1/4이 못되는 기간이지만, 그의 삶 중 한국에서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전

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험버트가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한 20년간을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육영공원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스민필지>를 편찬한 시기(1886.7~1891.12)이며, 둘째는 감리교 선교사 자격으로 내한하여 삼문출판사의 운영책임 및 Korean Repository의 공동편집인으로서 출판선교를 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관찰과 공부를 한 시기(1893.10~1897.5),²⁾ 셋째는 고종의 신임을 얻어 한성사범학교 교장 겸 대한제국의 교육고문으로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교육에 직접 간여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기(1897.5~1900.12), 넷째는 <The Korea Review>의 편집인으로서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사회, 정치 등에 대해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The Time>과 <AP통신>의 객원 특파원으로서 기고 활동을 하여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 시기(1901.1~1905.10), 다섯째는 고종의 밀사로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고, 이어 고종의 특사로서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여 한국 문제를 세계에 호소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한 시기(1905.10~1907.8)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시기에 그동안의 한국사 관련 기고문 등을 모으고 연구한 것을 종합하여 『The history of Korea』³⁾와 『The Passing of Korea』⁴⁾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험버트의 한국에서 활동이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한국인을 위한 일반적인 공익 활동에 종사한 것, 육영공원 교사, 한성사범학교와 관립중학교 근무, 고종의 특사활동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는 험버트가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받아 한성사범학교 교장과 관립중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던 시기를 독립적인 시기로 주목해 보았다. 이는 고종의 특사로서 미국과 헤이그 파견된 것은 국왕으로부터 두터운 총애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선교사로서 타국의 정치현실에 용기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험버트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886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1907년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지속하여 저술활동을 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저술들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은 『사민필지』이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만주 등 동북아시아 일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 대해 거의 무지의 상

표 1. 한국과 관련된 호머 헐버트의 업적

시기	사건
1886.7	육영공원(Royal English College) 교사 부임(1차 來韓). 23세
1888.9	메이 한나(May B. Hanna)와 뉴욕에서 결혼. 25세
1889	<스민필지> 저술 - 한국 최초의 한글 교과서. 26세
1890	<한국어사전> 출간. 27세
1891.12	육영공원 교사 계약 기간 만료, 미국 귀환. 28세
1893.10	아펜젤러의 권유로 감리교 선교사로서 2차 來韓,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책임자, 볼드윈예배소(Boldwin Chapel, 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30세
1895	배재학당 강의(이승만·주시경과 인연), Korean Repository (1882~1899)의 공동편집인, 을미사변(10.8) 이후 고종 침전에서 불침번 <士民必知> 한역본 출간(의정부편사국 간행). 32세
1897	한성사범학교 교장(5월), 대한제국의 교육고문. 34세
1900	관립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 교사,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창설이사. 37세
1901	<The Korea Review(1901.1~1906.12)> 편집인. 38세
1903	YMCA 창립준비위원·창립총회의장·초대회장, <The Time> 객원 특파원, “조선왕조 역사서 <大東紀年> 출간. 40세
1905	<The history of Korea>2권 출간, <Comparative Grammar of Korean and Dravidian> 출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10월)로 미국 방문 → 3차 來韓. 42세
1906	<The Passing of Korea> 출간, <사민필지> 수정판 출간. 43세
1907	고종의 헤이그특사로 파견 → 한국으로 귀국(4차 來韓), 일본의 송환요청으로 미국으로 귀환 →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피링필드에 정착. 44세
1908	오성근과 함께 <대한력스> 편찬 → 일본에 의해 폐기. 45세
1909	미국정부의 주선으로 한국 방문(5차 來韓) → 한국선교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고종의 덕화은행(Deutsch Asiatische Bank) 내탕금을 찾기 위해 상하이 방문 → 미국으로 귀국, <스민필지> 제3판 출간. 46세
1911~1916	성인 하계 대학 셔토쿠어 순회강좌(Chautauqua Circuit)에서 강연활동(언론보도된 것만 12건, 한국의 소개 및 독립 호소 등), 48세~53세
1919	파리강화회의의 기간 중 김규식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청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What about Korea’(일본의 잔학상 고발)라는 제목의 진술서 제출(8.15)
1927	한국 전래동화 <Omjee The Wizard> 출간. 64세
1942	워싱턴의 ‘Korean Liberty Conference’ 참석 → 한국독립 호소. 79세
1949	<스프링필드유니언(Springfield Union)>과의 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라고 평가.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8.15독립기념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내한(6차 來韓, 7.29) → 서울 위생 병원에서 사망(8.5) → 외국인 최초의 사회장 → 양화진에 안장(8.11). 86세
1950.3.1	외국인 최초 건국공로훈장 태극장 추서

※ 위 연보는 김동진(2010)에 있는 연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추가하여 작성함.

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민필지』는 한국인들에게 세계와 지구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문명전환기에 있는 한국인들이 서구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2. 『사민필지』의 편찬의 역사적 맥락

『사민필지』의 집필 및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들(안예리, 2023; 서태열, 2013; 최보영, 2012; 김제완, 2001)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민필지』가 아편전쟁 이후 세계인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편찬되는지를 고찰하여, 그것이 당시 한국인들의

세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논의한다. 즉, 전통적인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을 전복시킨 아편전쟁 이후, 한국인들의 서구 및 세계에 대한 이해가 청에서 발간된 세계지리서와 국제법 서적 등이 어떻게 전래되고 수용되었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사민필지』의 편찬과 이를 통한 교육이 당시 한국인들의 세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논의한다.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은 청나라에 들어온 서구 문물을 접하여 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 중 일부는 천주교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종교운동으로 발전시켰으나 가혹한 박해를 받아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천주교인들은 서구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이해를 체계화 시키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청나라를 사신으로 오가면서 청의 문물과 청에 들어온 서양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개화를 해야 한다는 사상도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구와 세계 그리고 대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상호작용 하여 전개되었고, 세계에 대한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새로운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서적은 청에서 발간된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영환지략(瀛環志略)』이다. 『해국도지』는 영국인 휴 머리(1779-1946)가 1834년에 런던에서 출간한 『세계지리대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사주지(四州志)』(1839)를 토대로 위원(魏源, 1794-1857)이 1842년에 편찬한 50권의 방대한 세계인문지리서이다. 『영환지략』은 서계여(徐繼畬, 1975-1873)가 세계정세를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848년에 세계 각국의 지리, 문화, 역사, 사회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총 10권 15만자 분량의 세계지리서를 저술하였다. 이 두 책은 당대의 중국 지식인에게 널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⁵⁾에도 차례차례 전해져 동아시아인들의 세계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 50권은 1844년 10월에 권대공 등 검사는동지사 일행이 북경에 파견되었다가 1845년 3월에 귀국할 때 가지고 와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북경에 다녀올 때 구입하여 개인들이 소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김정희(1786-1856)도 『해국도지』는 반드시 필요

한 책이라고 하였고, 허전(1792-1886)은 자신의 문집에 『해국도지』의 대강을 요약하여 다른 사람들이 방대한 내용을 참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영환지략』은 1850년경에 조선에 들어와 최한기와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김옥균 등 1880년대의 개화 사상가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한기(1803-1877)는 『해국도지』보다는 『영환지략』을 더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 두 서적을 모두 참작하여 우주와 지구 그리고 각 인간 사회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서 『지구전요(地球典要)』 13권 7책을 저술하였다(1857년). 여기에는 청의 지리서와 달리 천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고루한 쇄국정책을 비판하고 개국통상을 주장하는 점에서 서계의 영향이 엿보인다(노혜정, 2005: 493).

『영환지략』 등 세계지리서와 함께 동아시아인들의 서구 및 세계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만국공법』이다. 1836년 미국의 국제법학자 헨리 휘턴(Henry Wheaton)이 미국에서 펴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韪良, 1827~1916)이 1864년 『萬國公法』이란 책명으로 동문관(同文館)에서 한역(漢譯)하여 출판하였고, 일본에서는 이듬해인 1865년에 전래졌고, 1868년에 번역·해설되었다. 조선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일본 공사로 부임하기 전인 1877년 12월에 예조판서 조영하에게 한역본 전했다⁶⁾고 한다(김용구, 1999: 2-3). 그러나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미국 등 수교하면서 점차 관심이 높아졌고, 마침내 1886년 설립된 육영공원에서 교과서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萬國公法』은 네덜란드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가 1625년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에 이은 근대 국제법의 명저라고 한다. 이것은 유럽 국제법의 큰 흐름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를 조화시켜 주권국가 간의 법적 평등 원칙을 이론화하였고, ‘국가주권과 상호존중’, ‘국가 간의 평등 왕래’, ‘국제법 및 조약의 준수’ 등 근대 외교 및 조약체제의 기초를 제공하여 처음 번역한 중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는 대학의 교재로 활용되고 조선에서도 육영공원에서 강의되었다고 평가한다(이서희, 2023: 190-192).

그러나 근대국제법의 ‘만국평등’ 이념은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근대화를 이룩한 기독

교 국가에만 적용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문명국’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적용하고, 오스만제국과 중국·일본 등 ‘반(半)문명국’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제한을 두어 불평등조약을 강제하였고, 아프리카 제국 등 ‘미개국’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을 부정하고 ‘선점의 원칙’을 적용하여 식민지를 자유롭게 개척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에는 청을 통하여 세계지리서가 일본보다 앞서 전해져 소수의 지식인에게 소개되어 있었고, 근대 국제법 서적도 일본과 청을 통해 전해져 있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출판하거나 번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지식인들에게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시 문명사적 전환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세계에 대해 무지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민필지』가 편찬되어 육영공원뿐만 아니라 배재학당 등 근대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교과서로 활용되었고, 한글로 번역 출판됨으로써 일반인에게도 읽혀질 수 있었다.

『사민필지』의 편찬과 교육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즉, 세상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보다는 훨씬 넓은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계는 중국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들 사이에도 법률이 있다는 사실이 근대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한국사회에 수용되고 보급되었다. 그 결과 갑오개혁이라는 근대적 개혁의 인식론적 기초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근대적 시민운동의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에 있어서 문명사적 전환의 시금석을 놓았다.

3. 『사민필지』의 서문에 보이는 편찬 의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민필지』는 19세기 말 조선이 서구 문명과 접촉하고 근대화로 나아가야 했던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로, 당시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험버트는 『사민필지』의 서문에서 조선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험버트는 서문에서 당시의 세계가 ‘한 집안’처럼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사민필지』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세계 각국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고, 서구 문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국제적 교류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편찬 의도로 구체화되었다. 『사민필지』 서문의 첫 머리는 편찬 취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신하영 외, 2020: 20)

천하 형세가 네와 지금이 크게 같지 아니하여 전에는 각국이 각각 본 지방을 직회고 본국 풍속만 서로 드러더니 지금은 그러치 아니하여 천하만국이 언약을 서로 맺고 사람과 물건과 풍속이 서로 통하기를 마치 한 집안과 같으니 이는 지금 천하 형세의 곳치지 못할 일이라

여기서는 19세기 말의 세계를 천하만국이 약속을 서로 믿고 사람과 물건과 풍속이 서로 교류하기를 마치 한 집안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마치 21세기 오늘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는 듯하다. 당시, ‘반문명국’이나 ‘미개국’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험버트는 “지금 천하의 형세는 앞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곧, 그는 한 집안과 같이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교류하는 ‘문명국’ 간의 질서가 보편화되어야 하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세계는 험버트가 말한 대로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1947년의 GATT를 거쳐 1995년에 WTO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가 서문에서 한국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세계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지리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신하영 외, 2020: 20).

각국이 전과 같지 본국 글씨와 스적만 공부함으로는 천하 각국 풍기를 엿지 알며 하지 못하면 서로 교접하는 수에 맞당치 못함과 인정을 통함애 스금이 잇스면 정의가 서로 도타지 못할지니 그런즉 불가불 이전에 공부하던 학업 외에 스도 각국 일함과 지방과 폭원과 산천과 소산과 국경과 국세와 국조와 군수와 풍속과 학업과 도학의 엿터움을 알아야 할 거시니 어런고로 태서 각국은 남녀를 무론하고 칠팔세 되면 문져 천하 각국 디도와 풍속을 가르친 후에 다른 공부를 시작하니 천하의 산천 수륙과 각국 풍속 정치

를 모르는 사람이 별노 업는지라 조선도 불가불 이와 같치
흔 연후에야 외국 교접에 거리스 곱이 업습 거시오

이 구절에서는 헐버트는 자국어와 자국사만 공부해서
는 서로 교류함에 있어서 오해가 생겨 신뢰를 쌓기 어려
우니 각 나라의 지리와 여러 사정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서양 각국은 먼저 각국의 지도와 풍속을 가르친 연후에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데, 조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외
국과의 교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서
구문명의 본질을 다양한 차원의 교류라고 보고, 그러한
세계에서 국가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도 세계와 세계 각국의 사정을 배워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한글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신하
영 외, 2020: 22).

사도 생각건대 중국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업고 조선 언문은 본국 글스 뿐더러 선보 | 와 보 | 나 성
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오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스 중에 비하야 크게 요긴한 것마는 사람들이 긴히 줄노
아지 아니하고 도로혀 업수히 녀이니 엇지 앓갑지 아니리
오 이러므로 외국 용우흔 인물이 조선말과 언문스 법에 익
지 못흔 거스로 붓그러움을 니저버리고 특별히 언문으로
써 턴하 각국 지도와 이문목견흔 풍기를 대강 기록홀스 |
몬져 사다덩이와 풍우박외의 엇더함과 차례로 각국을 말
습 하니 근세히 보시면 각국 일을 대충은 알거시오

즉, 한글로 『사민필지』를 편찬하는 이유는 한글이 중국
한자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한글로 쓰면 사
민(士民)과 남녀 모두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며, 어리석
은 외국인이지만 특별히 한글로 지구와 대기현상 그리고
각국의 사정을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자면 헐버트는 서문에서 지금의 세계가 한집안
처럼 서로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조선도 그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녀노소 모
두가 세계의 인문과 지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이유로 한글로 『사민필지』를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헐버트는 서구가 주도하고 있는 현대 문명
의 본질을 ‘세계가 한집안처럼 교류하는 것’이라고 파악
하여, 이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III. 『사민필지』의 서술 구조와 내용의 특징

1. 『사민필지』의 서술 구조

『사민필지』는 지구와 각 대륙을 다루는 세계지리 교과
서로, 당시 조선인들에게 세계 각국의 지리적, 문화적, 경
제적 특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려는 목적으
로 편찬되었다. 표 2의 목차를 보면, 헐버트는 지구와 자
연현상을 먼저 설명한 후 세계 5대주의 각국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제시된 목차를 통해 『사민필지』는 ‘사다덩이(지구)’부
터 공부한 후, 세계 5대주의 각 나라들을 배우도록 내용이

표 2. 『사민필지』 한글본과 한역본의 목차 비교

『사민필지』(한글본) 목차	『사민필지』(한역본) 목차
<사민필지> 서문	번역 서문(金澤榮, 議政府編史局 主幹)
<사민필지> 목록	권지일
데일장	지구
-사다덩이(3~11)	지구총론
데이장	인종총론
-유로바(12~68)	유럽총론
데삼장	권지이
-아시아(69~100)	아시아총론
데스장	아메리카총론
-아메리카(101~139)	아프리카총론
데오장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아프리카(140~153)	태평양 여러 섬
-오스트렐라와 태평양의 모든 섬(154~161)	태평양 여러 작은 섬
	(2권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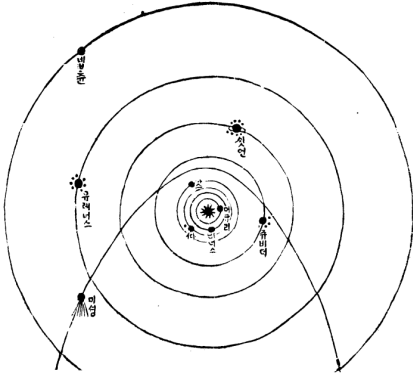


그림 1. 『사민필지』(한글본)의 태양계 모습
출처: 디지털장서각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에 대해서는 그림 1처럼 우주 속 지구와 일식, 구름, 비, 바람, 번개, 천둥, 지진 등 각종 자연현상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세계 각지의 인종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헐버트는 왜 이처럼 지구와 지구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인종에 대해 먼저 공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한국인들이 지구와 자연현상 그리

고 사물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이야말로 서구가 주도하는 현대문명의 표준이기 때문에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리와 풍속 등에 대한 지리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구와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직접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우주 현상과 자연의 기후현상 그리고 세계의 여러 인종들을 과학적 및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5대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유럽을 배치하고, 분량도 가장 많은 56쪽을 할당하고 있다. 이것을 왜 일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미국이 속해 있는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분량으로는 아시아(31쪽)보다 약간 많은 38쪽을 할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를 아메리카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가 면적도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까닭에 당시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간섭주의를 택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보다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표 3. 『사민필지』에 나타난 각 대륙별 서술 구조

구분	서술 구조
유럽	영국(英國), 프랑스(法國), 독일(德國) 등의 주요 국가들이 다루어진다. 이들 국가의 지리적 위치, 기후, 주요 지형적 특징,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특성 등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섬나라로서의 지리적 특징과 해양 기후의 영향을 설명하며, 런던(倫敦), 맨체스터(曼徹斯特), 에든버러(愛丁堡) 등의 주요 도시를 소개한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각각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상세히 서술하여 학습자들이 각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아시아	중국(中國), 일본(日本), 인도(印度) 등의 국가들이 상세히 다루어지며, 각국의 지리적 위치, 기후, 인구, 주요 도시 등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그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를 설명하며, 주요 지리적 특징인 황하(黃河), 장강(揚子江), 티베트 고원(西藏高原) 등을 다룬다. 또한,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의 지리적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일본과 인도 역시 각각의 지리적 특징과 주요 도시, 경제 활동 등을 다루어 학습자들이 각 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미국(美國), 브라질(巴西), 아르헨티나(阿根廷) 등의 주요 국가들이 다루어진다. 이들 국가의 지리적 위치, 주요 지형적 특징, 기후, 경제 활동 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기후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뉴욕(紐約), 로스앤젤레스(洛杉磯), 시카고(芝加哥) 등이 있으며, 독립 과정과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埃及), 나이지리아(尼日利亞), 남아프리카공화국(南非共和國) 등의 국가들이 다루어진다. 이들 국가의 지리적 위치, 사막과 열대 우림 등의 주요 지형적 특징, 인구 분포, 주요 경제 활동 등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나일 강(尼羅河)과 사막 지형이 주요 경제 활동과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카이로(開羅)와 알렉산드리아(亞歷山大) 등의 주요 도시를 다룬다.
오세아니아	호주(澳洲)와 뉴질랜드(新西蘭)가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이들 국가의 지리적 위치, 주요 지형적 특징, 기후, 경제 활동 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시드니(雪梨)와 멜버른(墨爾本)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과 경제 활동을 다룬다.

이해된다. 『사민필지』에 나타난 각 대륙별 서술 구조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처럼 대륙별 서술구조는 대륙의 지리적 특징, 주요 국가들의 개요, 해당 국가들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각 대륙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모든 대륙과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형식으로 대등하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하고 주관적 및 차별적인 평가를 일체 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대륙과 국가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험버트가 출판한 『사민필지』에서 그림 2와 같이 러시아를 유럽 지역에 포함된 아라사국과 아시아 지역에 포함된 아시아아라사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반면, 대한제국 의정부가 편찬한 한문본에서는 러시아를 단일하게 유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험버트가 러시아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분리해 서술하는 방식이 지리적, 문화적 관점을 고려한 것임을 보여주지만, 조선의 지식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를 유럽 국가로만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 지식층과 험버트가 갖고 있던 세계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험버트는 세계를 더 세분화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다루는 서구적 시각을 강조한 반면, 조선의 지식층은 당시의 전통적인 유럽 중심의 시각을 유지하며, 아시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서구의 지리적 구분이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층이 서구적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존 인식 틀 내에서 조정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2. 세계 각국에 대한 서술 내용의 특징

각국의 서술 체계는 위치, 면적, 지형, 기후, 산물, 광물, 국가체제, 인구수, 수도와 도시, 백성의 생업과 계급, 통상, 국세(國勢 : 국가재정, 세금, 군사, 선박 수), 교육, 종교, 국가의 소임 등을 모든 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위치는 경도와 위도로, 면적은 동서와 남북 각 몇 리인지와 같이 객관적인 수치로 기술하고 있다. 다른 모든 항목도 사실 정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모두 대등하며, 따라서 각국에 대해 공부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등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와 같은 서술체계가 유럽 각국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아프리카 대륙의 각국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위의 항목 기준들을 서술하지 않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동부 등에 각국을 포함시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항목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기술 내용은 유럽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세계 각국에 대한 서술의 특징은 『만국공법』의 적용이 유럽 제국에 대해서는 평등하지만, 반문명국이나 미개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는 현실이 『사민필지』에도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민필지』는 각 대륙별 국가를 소개하기 전에 대륙 전체를 개괄한다. 유럽을 개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 세계의 천하 각국 중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나라들보다 더 높은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이 제일이라 한다”(신하영 외, 2020: 51)고 기술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럽과 아메리카, 즉 기독교 국가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 프, 영, 오, 이, 스, 미가 문명국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더 높은 나라’라든가 ‘제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문명의 발전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 내용은 『사민필지』가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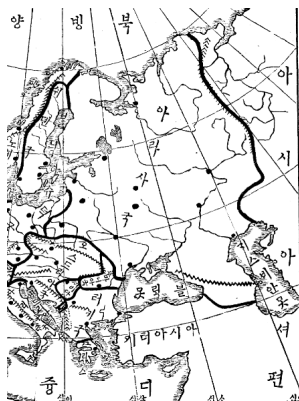


그림 2. 『사민필지』(한글본)의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
출처: 디지털장서각

국 문명의 발전 정도를 ‘국세’와 ‘국가체제’ 등의 항목을 통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국세’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영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당할 국가가 없다. 국가의 재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유하며, 아메리카 다음으로 제일이다. 1년에 세금으로 받는 돈은 4억 6000만원이고 각 식민지에서 받는 것은 1년에 20억 원이다. 국가의 재정을 모두 합하면 600억 원이고 또 상선이 30만 척이다. 기선과 집 지은 것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다. 군사는 육군이 15만 명이고, 해군이 4만 명이며, 화륜선이 300척 내에 철갑 대기선이 100척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국력은 강하다. 국가의 재정을 살펴보면 670억 원이고, 세계 각국 중에서 제일 부유하다. 1년에 받는 세금은 4억 원이다. 군사는 3만 명이고 화륜전선이 100척 내에 철갑대기선이 30척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독일에 대해 “국가의 재정은 매우 부유하고 세금으로 받는 돈이 1년에 3억 원이다. 군사는 육군이 60만 명이고 해군이 2만 명이며 화륜전선이 100척 내에 철갑 대기선이 27척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장사는 이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국력은 아시아나라 중에서는 강하다. 국가재정을 살펴보면 1년에 세금으로 받는 것이 대략 1억 2000만원이다. 군사는 100만 명이고 철갑 기선이 40척 내에 대기선이 3척이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국력은 유럽 나라들과 같이 강하다. 국가 재정을 살펴보면 1년에 세금으로 받는 돈이 8000만원이다. 군사는 육군이 20만 명이고 화륜전선이 30척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서는 고유의 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이나 1년에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고 1년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수십만 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국세에 관한 서술을 보면 독일이 군사 면에서는 육군이 60만 명으로서 가장 많지만, 영국이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나 해군 면에서는 가장 많고 강하며 특히 엄청나게 많은 상선의 수를 밝히고, 국가 재정 규모에서는 미국이 영국보다 조금 더 풍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 재정이 영국보다 많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지만 백성들로부터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영국보다 적고, 군사나 철갑 대기선 수도 훨씬 적은 평화의 나라임을 은근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

본의 국세는 객관적 수치에서 유럽 주요국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이미 세계는 기독교 문명권, 특히 서구유럽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한편, 『사민필지』는 각국의 국세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체제와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체제와 형벌 제도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지리적 정보 제공을 넘어 각 나라의 통치 구조와 사회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의 국가체제에 대해서는 “국왕이 있어 직위를 대대로 계승하되, 만일 태자가 없으면 공주가 이어서 즉위한다. 정사는 백성들이 모두 주장하고 정사를 돕는 대신도 백성들이 선출한다. 형벌하는 방법은 살인죄만 목매달아 죽인다. 다른 죄는 경중에 따라 벌금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데, 죽을 때까지 가두기도 한다.”라고 하여, 왕위 계승에 있어서 여자에게도 기회가 있고, 백성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고 대신을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며, 형벌이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왕이 있어 정사를 임의대로 한다. 형벌하는 방법은 죽이는 형벌도 많고,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도 많다.”라고 서술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선에 대해서도 “국왕이 정사를 임의대로 다스린다. 형벌하는 방법은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가두거나, 벌금을 받거나, 태형을 한다(대개 중국과 같다).”라고 하여, 정치와 형벌이 중국과 같고 ‘문명국’인 영국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각국을 서술할 때 국가체제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국왕이 임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 독재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형벌도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한지를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체계는 그 어디에서도 중국이나 조선의 국가체제를 직접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체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정치의 방향과 조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교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안예리(2023: 180-181)는 『사민필지』를 서술할 당시

헬버트가 미국의 친형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여, 조선에서 자신의 근대적 교육 실천을 통해 조선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할 민중 정당의 탄생을 희망하고 있었고, 그러한 숨은 의도가 각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서술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예리의 이러한 주장은 『사민필지』의 각국 국가체제에 대한 서술에서 내용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민필지』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것을 주목하여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러시아를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당시 국제정세 인식의 초점이 되었던 러시아에 대해 국가체제, 백성의 생업과 계급, 국세 그리고 국가의 소임 항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국가체제 대해서는 “국왕이 대를 이어 다스리며, 정사는 국왕이 모두 임의대로 한다. 또 전국을 50개 지방으로 나누었는데, 지방마다 한 명의 감사를 두었다. 형벌하는 방법은 역적만 죽이고 연좌는 전혀 없다.”라고 서술하여, 세습 군주제의 독재국가이며 50개 지방으로 구성된 큰 제국이고, 형벌은 서구의 국가들과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

백성의 생업과 계급에 대해서는 “생업은 농업, 실쌈, 가죽 다루기, 광업, 목축, 사냥이다. 사람의 계급은 양반, 선비, 상인, 농민, 노동자로 나뉜다.”라고 서술하고 하여, 러시아는 아직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고, 특권 신분이 있고 계층도 나뉘어져 있는 아직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신분제 농업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국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 천하 각국이 꺼린다. 국가 재정을 살펴보면 별로 부유하지는 않다. 세금은 돈으로 받으며 1년에 5억 원이다. 군사는 육군이 200만 명 내에 정규군은 80만 명이다. 화륜전선은 400척 내에 철갑 대기선은 32척이다.”라고 하여 천하 각국이 꺼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이 부유하지 않는데 비해 백성으로부터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은 미국의 4억이나 영국의 4.6억보다 많고, 육군의 수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200만 명이나 되는 군사국가임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의 소임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를 힘써 지키고, 또 새로운 영토를 얻기 위해 매우 힘쓴다.”고 하여, 새로운 영토를 얻기 위해 앞서 언급한 200만 명의 병력을 이

용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소임에 대해 “아메리카 어느 지방이라도 다른 나라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어느 작고 약한 나라라도 서로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가 평등한 국가가 됨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또 남의 나라 정사를 도무지 아는 체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먼로주의와 함께 약한 나라와도 평등하게 교류하고, 침략할 의사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서술하는 데서 드러난다.

또한, 영국의 국가 소임에 대해 “각국에 나가 사는 상인과 선교사를 힘써 보호하고, 어디든 미개한 지역에 풍속을 가르쳐 문명하게 한다. 또 새로운 영토 얻기에 힘쓰며 어느 나라의 무슨 일이라도 상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 소임에 관한 기록이 없고, 일본의 국가 소임에 대해서는 “외국 풍속을 배워 국가를 더욱 강하고 부유해지도록 하는데 매우 힘을 쓰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데서도 러시아와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해 상관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처럼 영토야욕이 아니라 좋은 문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변호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1889년 당시까지는 경계하는 구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 러시아는 한마디로 세계 각국이 경계하는 나라라는 것과 그 이유를 국세와 국가의 소임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도 역시 러시아를 경계해야 하며, 국가체제나 백성들의 생업이나 계급 등을 살펴 보더라도 앞으로 본받을 나라는 못 된다는 것이 서술 내용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

IV. 『사민필지』의 사회과교육적 가치와 시사점

1. 현대 사회과교육의 초석으로서 『사민필지』의 영향

『사민필지』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최초로 한글로 작성된 세계지리 교과서로, 한국인의 세계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 교육사에서 ‘교육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당시 세계와 문명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이 책은 서구의 근대 문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서로도 작

용했다. 『사민필지』의 서문에서 험버트는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보고,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과 물자, 문화가 교류하는 것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적 사고와 세계 각국의 사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사회과교육이 강조하는 글로벌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방식과 직결되며, 현대 사회과교육의 기초가 이미 『사민필지』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 한국 사회에서 ‘과학적 사고방식’과 ‘세계화된 시각’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은 전통적인 유교적 사유와 폐쇄적인 지리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험버트가 저술한 『사민필지』는 한국인들에게 지구과학적 지식과 세계 각국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조선이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 최초의 관립 근대교육기관인 육영공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육영공원은 원산학사와 배재학당과 같은 사립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는 했으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근대 교육을 추진한 최초의 기관이었다. 육영공원은 서양식 학문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갖추었고, 그중에서도 『사민필지』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당시 세계지리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교과서가 조선에서 근대 교육과 세계관 형성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들(조영달, 1995; 박남수, 2001; 이진석, 2003; 김세훈·이동원, 202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사회과교육은 오랫동안 해방 이후 미군정의 교육 정책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한국 사회과교육의 기원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인 변화와 발전에는 비약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한국 사회과교육 역시 단순히 외세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사민필지』는 근대 한국에서 서구적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된 이러한 인식적 기

반 덕분에,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미국식 사회과 교육이 한국 사회에 큰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즉, 『사민필지』는 근대 한국이 서구 문명과의 교류와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민필지』 서술 내용의 사회과교육적 요소

『사민필지』의 한국 사회과교육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과교육이 어떤 교과이며, 또 어떠한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과학관을 그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회과교육은 주지하듯이 ‘민주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 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해석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민주 시민’이란 기본적으로 천부적 인권을 가진 ‘개인’이며,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하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유권자’이며, 따라서 자신과 사회의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력’과 ‘민주적 문제해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상정한다. 요컨대 사회과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인간관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 존엄한 인간이 자신과 같은 존엄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신 및 사회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과 과학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과교육 탄생기⁷⁾의 미국 사회와 시민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는 험버트가 『사민필지』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세계 각지로부터 이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한집안처럼 사람과 물건과 풍속을 교류하면서 사는 사회이며, 그 속에 사는 미국인들은 세계도 미국처럼 사람과 물건과 풍속을 교류하며 사는 세상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미국인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약속강식을 정당화하는 국제질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새로운 국제질서가 대통령 월슨에 의해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미국 사회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과 과학관이 이상과 같다면, 그것은 이미 험버트가 미국 사회과학이 탄생하기도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 『사민필지』를 통하여 한국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것이었다. 『사민필지』는 세계가 한 집안처럼 서로 교류한다는 것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지구와 기후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장을 설정하고, 또 세계 각국의 사정들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과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근대적 과학관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륙별 구성이라든지 각국에 대해 국가체제와 국세 그리고 국가의 소임 항목을 설정하여 실용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떤 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실용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사민필지』가 1890년에 출간되어 1909년에 제3판이 출간될 때까지 육영공원과 배재학당을 비롯한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세계지리 교과서로 그대로 사용되거나 편집·수정되어 사용⁸⁾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미 험버트의 『사민필지』를 통하여 현대의 사회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과 과학관을 공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하에서 한국 사회에 실현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의 정신 속에 잠복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현대 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에 도입될 때, 한국인들이 이를 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오늘날 한국 사회과학교육에의 시사점

현행 사회과학교육과정에는 “사회과학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22: 6)라고 사회과학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필지』의 교육적 가치와 관점이 현대 한국 사회과학교육에 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민필지』는 당시 한국 사회에 지리학적 지식과 함께 과학적 사고 방식과 글로벌 관점을 제공하며, 한국인들이 세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민필지』는 현대 사회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유용한 사례가 된다. 예를 들어, 『사민필지』가 제시한 대륙별 정보나 국가별 비교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의존적인 국제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돕는 교육적 자료로 『사민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사민필지』는 당시 조선이 전통과 근대 문명을 융합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회를 형성하고자 한 교육적 목표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과학교육에서도 민주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서구 문명과 전통 문화의 융합 과정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외부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그 가치를 재구성해온 사례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이해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민필지』는 단순히 국가 간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체제와 역할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조선이 근대 국가로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과학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민필지』의 서술 방식은 오늘날의 사회과학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지향적 교육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적 관점과 과학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이 책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사민필지』는 단순한 지리 교과서를 넘어 한국이 근대 사회와 문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적 전환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회과교육에서도 『사민필지』가 담고 있는 사상과 교육적 시사점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시민성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민필지』가 한국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 교과서로서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고찰하였다. 『사민필지』는 단순한 지리 교과서 이상으로, 조선인들이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세계 인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민필지』는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비서구 지역을 낮게 평가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이 외부 문명을 어떻게 수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문명사적 전환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한국사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새로운 문명의 수용과 그것의 정착화 및 발전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난다. 곧 외부에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적극 수용하여 정착시키고 본 고장에서 유행한 것 이상으로 발전시켜 한국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인은 4세기 후반부터 중국으로부터 불교 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고대국가를 발전시켰다. 이때 불교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뒤처졌고 소극적이던 신라는 6세기에 일단 불교를 공인한 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독특한 전연불국토(前緣佛國土) 사상을 전개하여 나라 전체를 불교화하는 전면성을 보였고, 한국적인 불교를 발전시켜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이 과정에서 승려 의상은 “중생도 각자의 위치에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여 모든 인간의 가치를 부처님 수준까지 향상시켰다. 이것이 한국사에서 제1의 문명사적 전환이었다.

13세기 후반에는 원을 통하여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방하며 성리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에 힘써 이황에 이르러 한국적 성리학을 체계화하였다. 퇴계는 성리

학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누구나 교육을 받고 마음을 수양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 후 조선은 성리학을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길을 개척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리학적 색채가 강한 유교사회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한국사에서 제2의 문명사적 전환이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을 보면서 한국인은 서구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것을 수용하기는커녕 엄청난 박해와 거부, 즉 쇄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곧 자세를 바꾸어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미국, 영국 등과 근대적 조약을 맺어 서구의 근대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조선 사회 내에서는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서구 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운동이 대한제국의 멸망 시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도 서구 문명을 꾸준히 수용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통해 전면적 수용을 하여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적인 면에서 성과를 얻었고, 이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나아가 K-컬처를 개척하여 세계의 대중에게 기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한국사에서 제3의 문명사적 전환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명사적 전환을 고찰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이 이루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성취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이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문명사적 전환을 겪었으며, 각각의 전환은 외부 문명을 수용하고 이를 한국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제3의 문명사적 전환에서 서구의 근대 기독교 문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호머 헐버트이며, 그의 저서 『사민필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헐버트의 『사민필지』는 제3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서구 문명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단절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과교육의 원리와 체제를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기반 덕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교육, 경제, 정치,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독자적인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사민필지』는 그러한 성취의 초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사민필지』를 통해 형성된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 방식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과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주 시민성, 세계적 이해, 그리고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현대 사회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인 비판적 사고와 글로벌 시민성의 함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민필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민필지』가 한국 사회의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 바는 분명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사민필지』가 서구 중심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한다. 헐버트가 서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에게 소개한 내용은 한국 사회가 자주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도전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헐버트가 의도했던 교육 목표가 한국 사회의 필요보다는 서구 문명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조선의 전통적 가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민필지』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양한 측면과 서구 문명의 수용과정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

- 1) 『사민필지』가 서술된 시기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가 겹치는 시점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의 인물을 일괄되게 ‘한국인’이라는 용어로 통칭함을 밝힌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역사적 인물도 포괄적으로 ‘한국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고, 현대적인 용어로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이 시기에 춘생문사건(1895.11)이나 을미사변 직후 고종의 불침번을 서는 활동, 그리고 독립신문 창간(1896.4)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출판선교사라는 본직을 충실히 했다고 본다.
- 3) 2009년에 마도경·문희경에 의해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로 번역됨. 통사의 한국사를 영어로 저술된 것은 한국을 서구 제국에 알리려는 의도를 읽히며, 이것이 2000년대에 와서 다시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이 제3자의 시선에서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읽혀진다.
- 4) 1984년에 신복룡에 의해 <大韓帝國滅亡史>로 번역됨.
- 5) 『해국도지』가 일본에 소개되어 처음 출간된 것은 1850년이며, 『영환지략』은 1860년에 출간되었고 1874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조선에는 『해국도지』가 1845년에, 『영환지략』이 1850년에 들어졌으나 출간되거나 번역되지는 않았다.
- 6)故 이광린 교수는 하나부사가 전하기 이전에 청나라를 사행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조선사회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만국공법’이란 말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반론하였다.
- 7) 대부분의 사회과교육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사회과교육의 탄생을 사회과(Social Studies)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1916년 NEA 보고서’에서 찾고 있다(오연주, 2006: 78).
- 8) 개화기 및 애국계몽기의 학교에서 사용된 세계지리 교과서가 『사민필지』인지 아닌지만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서술 내용에 대한 분석·조사를 해보아야 『사민필지』의 영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9) 한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켰다는 것은 서구의 근대기독교문명을 수용하여 단지 모방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철성, 2009, “사민필지의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6(3), 67-75.
- 교육부, 2023, 사회과교육과정(별책7: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김동진, 2010, 파란눈의 한국헌 헐버트(Crusader for Korea, Homer B. Hulbert), 참좋은친구.
- 김세훈·이동원, 2023, “사회와 도입·성립기 초등 사회과교육자 최병칠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30(4), 15-30.
- 김용구, 1999, “조선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 세계정치, 23(1), 1-25.
- 김재완, 2001, “민필지에 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13(2), 199-210.
- 김형태, 2020, “한문본『사민필지(士民必知)』의 유서(類書)적 특성 연구”, 열상고전연구, 70, 193-224.
- 박남수, 2001, 韓國社會科教育成立過程의研究: 社會認識教育カリキュラムの構造と論理, 히로시마대학 박사학위논문.
- 백남규·이명상 저, 김형태·고석주 역, 2020, 한문본 역주 사민필지, 소명출판(백남규·이명상, 士民必知).
- 서태열, 2013, “개화기 학부발간 지리서적의 출판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52(1), 53-69.

손정숙, 1995, “舊韓末 험버트(Homer B. Hulbert)의 對韓認識과 그 活動”, 梨花史學研究, 22, 127-147.

신하영·안예리·김동진·안슬임·함한희·허재영, 2020, 한글로 세계를 바라보다, 지리교과서 사민필지, 국립한글박물관.

안예리, 2023, “『사민필지』의 집필 과정과 내용적 특징”, 국어사연구, 36, 173-216.

오연주, 2006, “미국의 초기 사회와 전통에서Harold Rugg의 교육이념 및 실천 노력의 위상 탐색”, 시민교육연구, 38(3), 63-96.

이서희, 2023, “유럽 국제법의 기원 및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검토”, 亞細亞研究, 66(4), 175-209.

이진석, 2003,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 초기 교육정책과 사회과 도입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5, 295-118.

전민호, 2010, “험버트(H. B. Hulbert)의 활동과 교육사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6(1), 5-23.

조영달, 1995,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성립과 전개”, 시민교육연구, 21(1), 323-340.

최보영, 2012, “育英公院의 설립과 운영실태 再考察”,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87-319.

허재영, 2015, “근대 계몽기 지식 유통의 특징과 역술 문헌에

대하여”, 어문론집, 63, 7-36.

허재영, 2020,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험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의”, 語文學, 147, 239-262.

Harper, W. M., 1877, Harper's School Geography (2nd ed.). Harper & Brothers.

Homer b. Hulbert 저, 고석주·김형태 역, 2020, 국문본 역주 사민필지, 소명출판(Homer b. Hulbert, 스민필지).

Zimmerman, J., 2020, February 25, The racism of history textbooks. JSTOR Daily. Retrieved from <https://daily.jstor.org/the-racism-of-history-textbooks/>

디지털장서각 사이트 (<https://jsg.aks.ac.kr>, 2024년 9월 10일 접속).

접 수 일 : 2024. 09. 12

수 정 일 : 2024. 11. 10

게재확정일 : 2024. 11. 11

교신: 박지수, 4758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26-4, 연일초등학교 교사(dyb86@naver.com)

Correspondence: Jisu Park, dyb86@naver.com